

# 溪堂 柳疇睦과 閩山 柳道洙의 학통과 그 역사적 위상

우인수\*

## 차례

1. 머리말
2. 가계와 가문적 배경
3. 퇴계-서애 학통의 계승과 그 특징
4. 계당과 민산의 현실대응의식과 자세
5. 맺음말

### 【국문초록】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는 조선조 말 영남의 유학자였다. 그들은 퇴계학통의 主脈을 서애 류성룡을 통해 이어받았다. 즉 류주목은 류성룡-정경세-류진-정도응 ..... 정종로-류심춘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았고, 이를 류도수에게 전하였다. 퇴계학맥의 정통 줄기 중의 하나를 이어받았다는 점과 동시에 영남 학맥의 주맥을 소중히 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학통의 특징으로는 家學으로 이어지는 점이 강하였다는 점, 류씨와 정씨를 교차하면서 학통이 전수되었다는 점, 사승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안동을 중심으로 서남지역에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점, 정승을 지낸 류성룡의 후손들이 많은 만큼 ‘世祿之臣’으로서의 현실대응자세를 견지한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한편 그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을 보였다. 먼저 류주목은 천주학과 서양세력에 대해 배척하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천주교도 박해 문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제로 프랑스함대의 공격을 받은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는 의병을 조직하는 대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외 그는 성리학, 예학, 사학, 보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현실에 부응한 저술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류도수도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현실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다. 『상감박의』를 지어 올려 정승인 족조 류후조를 보좌하였고, 대원군이 실각하고 칩거함으로써 드러난 부자간 갈등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상소운동에 疏頭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류주목과 류도수는 本源에 주력하여 원칙에 투철한 영남 퇴계학맥의 특징을 몸소 실현한 유학자였다. 그들이 보여준 학문하는 자세와 현실에 대응하는 의식, 그리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주제어

柳鳴睦, 柳道洙, 退溪學派, 溪堂全書, 閩山文集

## 1. 머리말

계당 류주목(1813(순조 13)~1872(고종 9))은 조선조말의 유학자이다. 그는 퇴계 이황의 수제자인 서애 류성룡의 학통을 이어받았다. 류성룡의 9대 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산 류도수(1820(순조 20)~1889(고종 26))는 류주목의 적전 제자로 조선의 마지막 유학자로서의 대미를 장식한 인물이었다.

지금까지 류주목에 대한 논고는 백도근의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sup>1)</sup> 이 논문은 류주목이 올리려고 썼다가 올리지는 않은 상소인 '擬上六條疏'를 분석 소개한 글이다. 본격적인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여 소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류도수가 소두로 활약한 만인소와 관련해서는 정진영이 19세기 영남 남인의 만인소를 분석하는 가운데 논급된 바 있다.<sup>2)</sup> 그 외 퇴계 학맥이나

1) 백도근,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계당 류주목 선생의 사상」, 『상주문화연구』 5, 1995.

2)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만인소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서에 계열 학맥을 논하는 글에서 류주목이나 류도수가 논급되면서 간단히 소개되거나 또는 이름 정도가 거론된 경우가 있었다.<sup>3)</sup> 따라서 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얕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집들은 근래 영인하여 보급된 바 있어 연구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류주목의 저작들은 『溪堂全書』로 총 3책으로 영인되어 간행된 바 있다.<sup>4)</sup> 여기에는 이우성의 해제가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다.<sup>5)</sup> 그리고 류도수의 경우에도 『關山文集』과 『國譯 關山別集』이 출간되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sup>6)</sup>

이들 책을 주된 자료로 이용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먼저 류주목과 류도수의 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학통상에서 그들이 지닌 특징과 의미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는 곧 그들이 속한 학맥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여준 현실에 대한 대응 의식과 자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의 그들의 역사적 위상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류주목과 류도수가 조선의 역사에서 지닌 좌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부경역사연구소, 1997.

3) 장지연 저, 류정동 역, 『조선유교연원(하)』, 삼성미술문화재단출판부, 1979, p.495.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국인물유학사』 4, 한길사, 1996, p.1930.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2000, p.171. 안병걸·김용현,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퇴계학』 13, 2002, pp.218~219. 금장태, 『유학근맥년』 2, 한국학술정보, 2004, pp.203~211.

4) 류주목, 『溪堂全書』, 계당선생문집 간행위원회, 아세아문화사, 1984.

5) 이우성, 「계당전서 해제」(『계당전서』상, 아세아문화사, 1984 소수).

6) 류도수, 『關山文集』, 대보사, 1996 ; 『國譯 關山別集』, 성문기획인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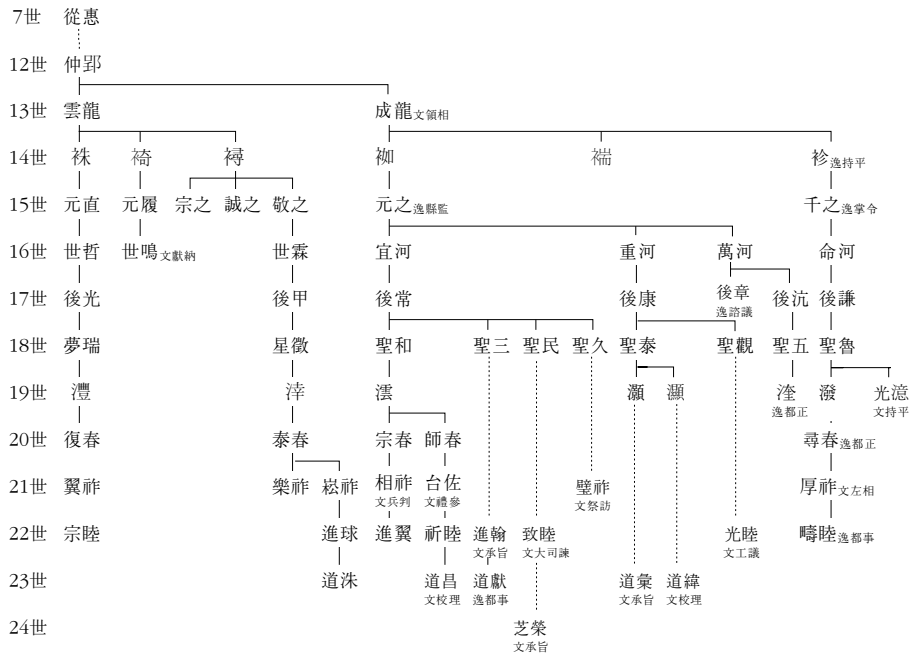
## 2. 가계와 가문적 배경

계당 류주목은 풍산류씨 西厓 柳成龍의 제 삼자인 柳彬에서 분파한 소위 愚川派에 속하였다. 류진은 안동 하회에서 상주 가사리에 이거하여 정착하였다. 상주지역에는 부친인 류성룡이 일찍이 상주목사로 재임시에 학문을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던 곳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연을 바탕으로 그들 집안과 혼인관계까지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주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는 아들 柳千之를 상주의 유력 재지사족이자 서애 류성룡의 문인인 李堉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서애의 적전으로 상주의 율리에 세거하던 鄭經世의 손자 鄭道應을 사위로 맞이하였다.<sup>7)</sup> 류진은 정경세로부터는 학통을 이어받아 다시 그 학통을 정도응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정씨 집안과는 학문과 혼인을 상호 교차하여 주고받으면서 각별한 결속을 유지하게 되었다.

풍산류씨의 가계도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도 1>과 같다.<sup>8)</sup>

- 
- 7) 현 상주시 청리면 율리이다. 이곳은 정경세의 고조인 정번 이래 세거하던 곳인데, 정경세의 현손인 정주원대에 우산 즉 현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로 이거하였다. 우산에는 원래 정경세가 마련한 溪亭이라는 조그만 서실이 있어 왕래하면서 지낸 곳이었는데, 정주원대에 완전히 이주한 것이다. 정주원의 손자 입재 정종로는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2003, pp.112~114.
- 8) 이 가계도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논지와 큰 상관이 없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였다. 따라서 장자의 경우에도 생략된 경우가 있으며, 후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절손된 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 가계도 작성에는 다음의 족보를 참고하였다. 풍산류씨문충공서애종파보소, 『豊山柳氏 文忠公西厓宗派譜』, 1978. 풍산류씨세보편찬위원회, 『豊山柳氏世譜』, 1985. 수암종택, 『豊山柳氏 文忠公西厓派 愚川世譜』, 2002. 풍산류씨 병촌파보간행소, 『豊山柳氏 屏村派譜』, 1980.



〈도 1〉 풍산류씨 가계도

우천과는 류진 이래 상주 가사리에 거주하다가 그의 현손인 柳聖魯대에 이웃 마을인 우천리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다.9) 우천파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이곳은 洛東江과 渭川이 합류하고 속리산·팔공산·일월산의 地氣가 모이는 二水三山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류성로의 손자인 江臯 柳尋春에 이르러 다시 학문적인 중망을 받으면서 서애 학통의 주맥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류심춘은 류성로의 둘째 아들인 柳光洙의 아들이었으나, 큰 아버지 柳瀾이 25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양자로서 그의 대를 잇게 되었다. 정조 10년(1786) 생원시에

9) 현 상주시 중동면 가사리이다. 우천리는 현 우물리로 수암중택이 위치해 있다.

합격하였고, 이어 학행으로 천거되어 세자익위사 익찬과 익위에 임명되었으며, 순조 30년(1830)에 돈녕부 도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출사하지 않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sup>10)</sup>

류심춘의 아들인 洛坡 柳厚祚는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여 부사로 재직시인 철종 9년(1858) 61세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흥선대원군의 집정시기에 남인계 중용책에 따라 초고속으로 승진을 거듭하여 고종 3년(1866)에 우의정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 좌의정에 이르렀다.<sup>11)</sup> 영남지역 남인에서 정승이 배출된 것은 서애 류성룡에 이어 약 3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류주목은 학자 류심춘의 손자이자 정승 류후조의 아들로써 학문적 적통과 世臣의 가계를 함께 이었다. 어려서부터 22세에 이르기까지 조부에게서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 조부로부터 학문적 자질을 인정받았으며, 그 가르침을 받아 爲己之學에 전념하게 되었다. 과거에 응시한 바는 있으나 과장의 부정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고종 4년(1867)에 동몽교관에 임명되었고,<sup>12)</sup> 이듬해에는 장악원 주부, 공충도 도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sup>13)</sup> 그는 성리학, 예학, 역사학, 보학에 두루 통달하여 그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남기고 있다.

한편 류도수는 겸암 류운룡의 10대손이다. 안동 하회에 근거해 있던 그의 가계는 柳雲龍의 손자인 柳敬之 대에 안동 북후의 月田里로 이거하였다. 여기서 5대 100여 년을 살다가 다시 의성의 沙村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의성의 사촌에 입향한 이는 류도수의 증조인 屏村 柳泰春이었다. 류태춘은 의성

10) 류심춘에 대한 약력은 그의 연보에 의거하였다. 『江臯文集』, 「年譜」(경북대학교 소장본).

11) 류후조의 약력에 대한 서술은 그의 연보에 의거하였다. 『洛坡文集』, 「年譜」, 대보사, 1995.

12) 『承政院日記』 128책, 고종 4년 12월 12일 신묘.

13) 『승정원일기』 128책, 고종 5년 5월 7일 계미. 『계당전서』, 부록, 「行狀」(柳道洙 撰).

사촌에 세거하고 있던 안동김씨 金南應의 사위인 인연으로 처가가 있는 곳으로 이거한 듯하다. 이거할 당시 그는 35세의 나이였으며, 57세인 아버지 滹과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sup>14)</sup> 여기서 그는 손위 처남인 5세 연상의 川沙 金宗德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닦았다. 이로부터 의성 사촌에 풍산류씨 병촌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풍산류씨와 안동김씨의 인연은 사실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1대 조 柳仲郢이 안동김씨 金光粹의 딸과 혼인하였고, 그의 둘째 아들 류성룡이 의가인 의성 사촌에서 태어난 바 있었다. 서애 류성룡의 탄생과 관련한 일화는 지금도 사촌지역에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풍산류씨와 안동김씨 사이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안동김씨는 풍산류씨의 유력한 혼반 중의 하나였다.<sup>15)</sup> 이런 배경에서 류태춘도 사촌의 안동김씨와 혼인을 맺게 되었고, 또한 처가가 있던 사촌으로 이거하여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류도수는 순조 20년(1820)에 柳進球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 아버지 류진구는 樂祚의 아들이었으나 숙부인 崧祚의 양자가 되었었다. 이에 류도수는 어려서 주로 조부 낙조의 관심과 학문적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날마다 책상을 대하였고,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아 일가를 이루었다. 고종 4년(1867) 그의 명성을 들은 의성현령이 선비를 교도하는 임무를 맡겼으나 사양하였고, 또 경상도관찰사의 천거에 유력자로 지목되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는 상주 도남서원에서 열리는 강회에도 참석하면서 교유범위를 넓혔으며, 『상감박의』 등의 저술에도 힘쓰는 한편 스승 류주목의 예론서인 『奎禮類輯』의 교정을 감당하기도 하였다.<sup>16)</sup>

14) 풍산류씨 병촌파보간행소, 『풍산류씨 屏村派譜』, 1980.

15) 김명자, 「16~19세기 풍산류씨 하회파의 혼반」, 『국학연구』 12, 2008.

16) 이상 류도수에 대한 설명은 그의 행장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민산문집』 8, 부록, 「行狀」(金道和 撰).

### 3. 퇴계—서애 학통의 계승과 그 특징

조선성리학에서 퇴계 이황의 학통은 면면히 이어졌으며,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학통은 지역적으로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전승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남인 계통을 중심으로 유지 계승되었다.

이황의 학통은 수제자급 직전제자를 통해 몇 개의 계열로 나누어져 계승되었다. 크게 나누면 세 개의 계열을 주로 꼽는데, 西厓 柳成龍과 鶴峰 金誠一, 그리고 寒岡 鄭述의 계열이다. 이 세 개의 계열은 각기 처한 환경에 의해 현실에 대응하는 의식이나 행동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고, 지역적인 분포에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면서 퇴계학맥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갔다. 세 계열은 사안에 따라 상호 협조와 교류, 경쟁과 갈등을 교차하면서 발전하였다.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는 퇴계학통을 서애 류성룡을 통하여 이은 서애계열에 속한 인물이었다. 즉 류성룡의 학통은 그가 상주목사로 재직시에 가르친 바 있는 상주지역의 유력한 재지사족이었던 愚伏 鄭經世에게로 이어졌다. 정경세는 류성룡의 셋째 아들 修巖 柳彬에게로 학문을 전하였는데, 이러한 인연은 류진이 거주지를 하회에서 상주 가사리로 옮기면서 더욱 긴밀하여졌고, 그 학통이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류진의 처지에서 보면 정경세를 통해 아버지 서애의 학통을 계승한 셈이었다. 이에 류진의 학통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져 계승되었다. 즉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계열과 하회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로 다시 나뉘어진 것이다. 먼저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은 정경세의 손자 無忝齋 鄭道應이 장인인 류진의 학통을 이어받아 가학을 통해 현손인 立齋 鄭宗魯에게로 전수하였고, 정종로는 江臯 柳尋春에게 전하였다.



이러한 정경세 가문과의 각별한 인연을 계당은 조부 류심춘의 행장에서 “대개 우리 문충공(류성룡)께서는 퇴계 이선생(이황)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수암(류진)과 漁隱(柳千之)이 독실히 문정에서 태어나 풍요로운 후손으로 드리웠다. 수암은 또 우복 정경세 선생을 좇아 배웠는데, 정선생의 학문은 우리 문충공에게서 얻어 세칭 도산 再傳의 적자가 되었다. 부군(류심춘)은 입재 정종로 선생을 우복의 손자이자 吾家의 연원이라고 하고 드디어 가서 배웠다.”<sup>17)</sup>라고 하였으며, “부군이 입재를 대하기를 마치 수암이 우복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하였다.<sup>18)</sup>

류심춘의 학통이 바로 손자인 류주목에게로 이어졌으며, 류주목의 학통은 민산 류도수에게로 이어졌다. 류도수는 어려서 조부 樂祚의 영향아래 공부를 시작하여 같은 사촌에 거주하던 栗園 金養休에게 의심나는 부분을 많이 질문하면서 성장하였다고 한다.<sup>19)</sup> 그 후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류도수가 찬술한 류주목 행장에 의하면 급문한지 20여 년이 되었다고 한 표 현에서<sup>20)</sup> 30대초에 류주목에게 급문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인연으로 상주 道南書院의 講會에도 열심히 참석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sup>21)</sup> 그는 류주목의 생전에는 스승을 위해 스승의 부친인 우의정 柳厚祚에게 올리는 『相鑑博議』를 저술하였고, 스승의 사후에는 문인들을 대표하여 그의 행장을 지었다. 나아가 흥선대원군의 봉환을 주장하는 상소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두로 추천받을 정도로 영남 일대에서는 중심인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17) 『계당전서』 16, 王考江臯府君家狀.

18)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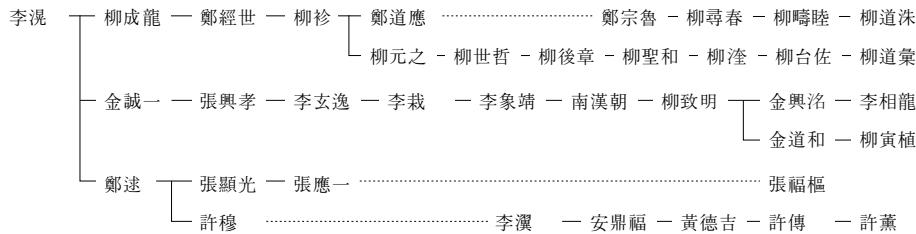
19) 김양휴는 안동김씨로 損齋 南漢朝와 立齋 鄭宗魯의 문인이다. 김양휴, 『栗園遺稿』, 栗園學稷, 1995.

20) 『계당전서』, 부록, 행장(류도수 찬), p.801.

21) 『민산문집』8, 부록, 행장(김도화 찬), p.139.

한편 하회계열은 류진의 학통을 류원지-류의하-류후장-류성화-류규-류이좌-류도휘로 이으면서 주로 류씨 가문 내부에서 학통을 전수하였다.

퇴계 이황의 학통도를 제시하면 다음의 <도 2>와 같다.<sup>22)</sup>



<도 2> 퇴계 이황의 학통도

퇴계 학맥에서 분파한 세 개의 계열은 큰 범주에서는 퇴계학통에 속하였으나, 나름의 학문적 색채를 키우면서 발전해갔다. 그 중 서애 류성룡 계열의 학통이 지닌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이 특징들은 학봉 김성일 계열이나 한강 정구계열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부각되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다. 계열별로 당연히 학문 내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이나 특징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학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위의 서애 류성룡 계열의 학통도에 보이는 학자들 가운데 류씨는 모두 서애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즉 류성룡의 학통을 이은 류진은 그의 아들이고, 류심춘은 류진의 6대손이며, 류주목은 류심춘의 손자이다. 이러한 경향은 하회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22) 이 학통도는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지역의 퇴계학맥도』(예문서원, 2002)를 주로 참고하여 필자가 가감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풍산류씨와 진양 정씨로 교차하면서 학통이 전수된 특징이 있다. 서애 류성룡이 상주목사로 재직시에 우복 정경세가 執贄하면서 사제관계를 수립한 이후 류씨와 정씨는 학통상에서나 혼맥에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류성룡의 학통은 정경세를 거쳐 류진에게로 이어졌다. 더욱이 류진은 하회에서 상주로 이거하기까지 함으로써 이후 정씨와 동일한 생활권에서 거주하였다. 류진은 정경세의 손자이자 자신의 사위인 정도응에게 학통을 전하였다. 정도응의 학통은 그의 玄孫 정종로에게로 이어졌으며, 정종로는 류심춘에게 학통을 전하였다.

셋째, 사승관계의 계보가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정도응에서 현손 정종로로 이어지는 경우 상당한 연대의 공백이 보인다. 이 점은 한강 정구계열에서도 허목과 이익을 잇는 부분에서 보이는 점이다. 하지만 학봉 김성일계열에서는 보이지 않는 면이라고 하겠다. 아마 적통이 류씨 내의 가학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주로 정씨와 사승관계를 주고받는 등 상대적으로 협소한 인적 범주를 가진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넷째, 지역적 분포 특징이다. 즉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서남쪽 지역에 서애 류성룡 계열의 학맥이 주로 포진하고 있고,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그 동북쪽 지역을 학봉 김성일 계열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류성룡과 김성일의 가문이 하회와 천전에 본거지를 두어 각기 안동의 서쪽과 동쪽을 양분하여 차지한 이래 출입하는 문인의 경우도 서로 피하여 입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류씨 가문은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이래 정승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가문과는 현실의 대응의식이나 자세에서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가 없을 수 없었다고 보인다. 다시 300년 만에 洛坡 柳厚祚가 정승으로 출사하게 되었다. 아들인 류주목이나 류주목의 제자인 류

도수도 음양으로 그를 보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의식이 학맥의 특징을 결정하는 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정승의 집안이라는 의식을 항상 지니고 있는 이상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다르고, 조정 정치에의 참여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본다. 일반 처사의 집안과는 달리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부담을 갖고 있기 마련이었다. 조정에 협조적인 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비타협 저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실대응의식과 자세에서 같은 퇴계학파에 속하더라도 다른 계열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이 부분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서애 계열 학통이 지닌 특징을 5가지로 지적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애 계열 학통이 지닌 특징들은 류주목과 류도수에게로 전수되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그들에 의해 충실히 계승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발전된 점이 있는 것이다.

#### 4. 계당과 민산의 현실대응의식과 자세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가 살았던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기였다. 대외적으로는 서양 열강들이 점차 동아시아로 밀려들고 있던 상황이었다. 중국과 일본이 먼저 반강제적 개항을 하였다. 이어 조선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두 차례에 걸친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구 열강의 간헐적인 통상 요구를 받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봉건사회의 갖가지 모순들이 분출되는 가운데, 조정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국왕권이 약해지면서 생긴 권력의 틈을 소수의 외척가문이 파고들었다. 관직을 독점한 소수 가문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었다. 다수의 사류들은 정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조선의 관료사회는

점차 自淨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피지배층은 민란이라는 저항을 시도하게 되었다.

계당과 민산이 속한 영남 남인은 서인-노론이 장기 집권함에 따라 오래 전부터 정계의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다. 남인은 17세기말 숙종대 甲戌換局 이후 정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정권의 주변부를 맴돌고 있었다. 물론 정조대에 蔡濟恭으로 상징되는 근기남인이 한 때 정국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을 때 영남지역이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은 적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노론 외척가문이 주도하는 세도정권하에서 다시 소외되었고, 간혹 개별적인 차원에서 출사가 명맥을 잇고 있었을 뿐이다.

풍산류씨의 경우에도 서애 류성룡 이후 오랫동안 정계 진출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출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주로 류성룡의 첫째 아들 계통인 찰방공파에서 18세기말 19세기에 문과급제자를 다수 배출하면서 명문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즉 류성룡의 8대손 류상조와 류이좌가 각각 문과에 급제하여 병조판서와 예조참판에 이르렀으며, 류벽조는 급제 후 찰방을 역임한 바 있었다. 9대손에서는 류진한이 승지, 류치목이 대사간, 류광목이 공조참의에 이르렀다. 10대손에서는 류도창이 교리, 류도휘가 승지, 류도위가 교리를 역임하였으며, 11대손에서는 류지영이 승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로 18세기말 19세기 중엽에 걸쳐 류성룡의 장남 여의 가계에서 10명의 문과급제자를 낸 가운데, 7명이 당상관의 고위직에 임명된 바 있었다.

그리고 류성룡의 셋째 아들 계통의 우천파에서는 류성룡의 6대손 류광역이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역임한 바 있었다. 이 계파에서 특기할 것은 무엇보다도 8대손 류후조가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문과에 급제한 후 승진을 더하여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는 류씨 문중을 넘어서서 영남 남인 전체에서 보더라도 서애 류성룡 이후 300년 만의 정승

배출이었다. 류후조는 고종대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정승으로 발탁되어 류씨를 대표하는 존재로, 나아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sup>23)</sup>

따라서 퇴계학맥에 속한 류씨 가문의 학자들에게는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재상가의 후손들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다. 특히 류주목은 바로 정승 류후조의 아들이자 동시에 퇴계학맥의 서애계열의 적통을 이은 대학자 류심준의 손자였다. 학자의 후손이자 정승의 아들이라는 서로 다를 수 있는 처세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서애와 아들 수암의 관계, 낙파와 아들 계당의 관계가 비슷하게 300년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이다. 그리하여 계당은 수암의 말을 빌어 “우리는 世臣의 집이라 나라에 일이 있으면 산야 처사들의 偃蹇한 태도를 본 받아서는 안된다.”라며 세신의 집안임을 상기시키면서 처사들의 행태와는 다른 처신을 하여야한다는 의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신의 집안이라는 인식은 체제에 대한 저항보다는 체제에 대한 협조나 순응의 대응을 보이는 쪽으로도 작동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었다.

계당의 현실에 대처한 양태를 보면 퇴계학맥을 잇는 학자로서의 대응 모습과 조정의 고위 관료를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의 대응 모습이 함께 보인다. 물론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표출되어 엄밀하고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점에서는 구분이 가능할 듯도 하다. 예컨대 여러 저술 활동이 전자의 모습이 더 많이 투영된 결과라면, 6조소상 소라든지 병인양요 때의 의병 창의 등은 후자에 의해 1차적으로 더 추동된

23) 당시의 최고권력자 흥선대원군은 영남을 자기 권력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 면이 있었고, 그것을 대변해줄 존재로 류후조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대원군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에 영남 유림을 일시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에는 류후조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정진영, 앞의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만인소를 중심으로—」, pp.181~194.

모습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그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는 6조 상소의 분석을 통하여 그의 현실 대응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조소는 우의 정으로 재직하는 부친이 올리는 상소를 계당이 대신 작성한 것이다. 본인의 이름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대신 지은 것이라는 점과 실제 국왕에게 올리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그의 의식 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크게 여섯 개 조항으로 제시되었는데, 勤聖學, 嚴邪禁, 得賢才, 修武備, 淸仕路, 定民志 등이다.<sup>24)</sup> 이 중 권성학, 득현재, 청사로, 정민지 등 4개조는 체제 정비와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19세기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은 엄사금과 수무비 두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두 조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엄사금에서는 조선에 유입되어 있던 천주교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는 천주교나 천주교 신자들을 유교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국내의 사정을 국외 세력들에게 전달하는 반국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엄하게 다스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수무비에서는 밀려오는 서구 열강들에 맞서서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경새재 주변의 험준한 곳을 중심으로 군영을 설치하여 5만 명의 병사를 양성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여러 가지 대책 중의 하나이다.

그가 제시한 방안들은 척사위정에 철저하였던 전형적인 유학자의 인식과 대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표방한 천주교도 탄압이나 통상거부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인식이었다. 그 정권에 몸을 담고 있으며 더구나 정승의 지위에 있는 부친이 그에 동조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24) 『계당전서』2, 擬上六條疏(代家大人作), pp.31~41.

그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는 기반을 제공하여야하는 처지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계당은 십분 이해한 상태에서 상소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비상시에는 분연히 일어날 줄 알았다. 프랑스 군함이 강화도를 침범한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의병장에 추대되어 낙동진에 진을 치고 진군할 차비를 하였다.<sup>25)</sup> 이 때 그는 모친상을 당한 상주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의 위험을 더 우선시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는 정승으로 조정에 출사해있는 아버지를 염두에 둔 대응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상중 거병은 충과 효를 동시에 실천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계당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을 위시한 역대 학자들의 성리설을 취합하여 정리한 『四七論辨』, 古今中外 예학자들의 예론을 유형별로 엮어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全禮類輯』, 그리고 당쟁의 기원과 그 전개 과정을 특정 당파의 시각을 배제한 채 시기 순으로 정리한 『朝莖約畧』 등 방대한 저술 활동을 한 바 있었다.<sup>26)</sup> 그는 이들을 저술함에 있어 자신의 주장이나 주관을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되도록 객관적으로 소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면서 충실한 자료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자료의 취사선택과 배열에 따라 편찬자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 긴장감이 감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술 작업은 현실과 관련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식의 하나였다고 하겠다.

계당의 이러한 현실인식과 대응 자세는 문인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5) 『계당전서』, 부록, 「行狀」(柳道洙 撰).

26) 이우성, 「계당전서 해제」, 『계당전서』상, 아세아문화사, 1984. 그 외 우리나라 성씨를 총괄 정리한 『海東姓譜』 40권을 펴낸 바 있는데, 앞의 『계당전서』에 실리지는 못하였다.



그의 적전인 민산 류도수도 스승과 거의 비슷한 대응 의식과 자세를 보였다. 그는 정승으로 있는 스승의 아버지인 류후조를 위해 『相鑑博議』를 저술하여 스승을 통해 전달하였다.<sup>27)</sup> 이 책은 중국의 상고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명재상들의 사적을 후세인의 평가 더불어 기술하고 말미에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의식의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민산 류도수는 시국을 걱정하여 영남지역 사류들이 올리는 상소에 소두로서 활약하면서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하였다.<sup>28)</sup> 당시 고종이 성년이 되어 친정을 선포함에 따라 홍선대원군은 10년에 걸친 섭정을 끝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이 원만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여 홍선대원군은 양주로 내려가 칩거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기에 이르렀다. 홍선대원군의 항의성 칩거는 정치적 권력 다툼이라는 면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자의 의리에 손상을 입히는 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결부되어 있었다.

영남의 유림들은 전자 즉 홍선대원군의 복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후자에 더 큰 명분의 비중을 두고 홍선대원군 봉환을 위한 상소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sup>29)</sup> 이 상소 운동에 민산 류도수가 소두로 추대되어 활약을 하였다. 이는 유소를 전달하여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영남 유림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의 현실 대응의식과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는 상소로 인해 유배에 처해지는 고초를 겪게 되었다. 그는 적소에 있으면서도 『大學』의 요체를 도표로 만들고 각 조목별로 의견을 붙여 저술한 『北遷芹曝錄』을 국왕에게 바쳐<sup>30)</sup> 군주에 대한

27) 『민산문집』 8, 부록, 「行狀」(金道和 撰).

28) 『민산문집』 8, 부록, 「行狀」(金道和 撰).

29) 상소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정진영, 앞의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만인소를 중심으로—」, pp.206~214.

30) 『민산문집』 8, 부록, 「行狀」(金道和 撰).

유학자로서의 도리를 다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계당과 민산은 유학자로서의 삶에 충실하여 학문을 닦아 학통을 이었을 뿐 아니라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작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행동으로 자신들이 지닌 신념을 관철 시키려한 점에서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지식인으로서 현실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조선조 마지막 유학자였다고 하겠다. 비록 그들의 대응이 이후 사회가 지향한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면도 있었지만 그러한 대응에서 보여준 그들의 의기와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5. 맺음말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는 조선조 말 영남의 유학자였다. 류주목은 8대조 류진 이래 상주 지역에 정착한 풍산류씨 우천파에 속한 인물로 정경세의 후손들과 학문과 혼인을 주고받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류도수는 안동 하회에서 월전을 거쳐 의성 사촌에 정착한 풍산류씨 병촌파의 일원으로 류주목의 수제자 반열에 든 인물이었다.

그들은 퇴계학통의 주맥을 서애 류성룡을 통해 이어받았다. 즉 류주목은 류성룡—정경세—류진—정도응 …… 정종로—류심춘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았고, 이를 류도수에게 전하였다. 퇴계학맥의 정통 줄기 중의 하나를 이어받았다는 점과 동시에 영남 학맥의 주맥을 소중히 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학통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특징으로는 가학으로 이어지는 점이 강하였다는 점, 류씨와 정씨를 교차하면서 학통이 전수되었다는 점, 사승

관계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안동을 중심으로 서남지역에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점, 정승을 지낸 류성룡의 후손들이 많은 만큼 ‘世祿之臣’으로서의 현실대응자세를 견지한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한편 그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을 보였다. 먼저 류주목의 경우 6조소를 통해 그의 현실을 바라보는 대응 의식을 짐작할 수 있는데, 천주학과 서양세력에 대한 배척의 논조가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실제 천주교도 박해 문제로 프랑스함대의 공격을 받은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는 의병을 조직하는 대응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외 그는 성리학, 예학, 사학, 보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현실에 부응한 저술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류도수도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현실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다. 『상감박의』를 지어 올려 정승인 족조 류후조를 보좌하였고, 대원군이 실각하고 칩거함으로써 드러난 부자간의 의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상소운동에 소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유배에 처해지고 말았지만 의리를 중시하면서 실천하는 마지막 유림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었다.

결국 계당 류주목과 민산 류도수는 본원에 주력하여 원칙에 투철한 영남 퇴계학맥의 특징을 몸소 실현한 유학자였다. 그들이 보여준 학문하는 자세와 현실에 대응하는 의식, 그리고 의리를 중히 여기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종덕, 『川沙文集』, 학민문화사, 1992.
- 류도수, 『閩山文集』, 대보사, 1996.
- 류도수, 『國譯 閩山別集』, 성문기획인쇄, 2006.
- 류심춘, 『江阜文集』,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 류주목, 『溪堂全書』, 아세아문화사, 1984.
- 류후조, 『洛坡文集』, 대보사, 1995.
- 수암종택, 『豊山柳氏 文忠公西厓派 愚川世譜』, 2002.
- 이양휴, 『栗園遺稿』, 栗園學稷, 1995.
- 이탁소, 『一山集』, 경북대도서관 소장본.
- 풍산류씨 병촌파보간행소, 『豊山柳氏 屏村派譜』, 1980.
- 풍산류씨 문충공서에종파보소, 『豊山柳氏 文忠公西厓宗派譜』, 1978.
- 풍산류씨 세보편찬위원회, 『豊山柳氏世譜』, 1985.
- 금장태, 『퇴계학과와 리철학의 전개』, 서울대출판부, 2000.
- 금장태, 『유학근백년』 2, 한국학술정보, 2004.
- 김명자, 「16~19세기 풍산류씨 하회파의 혼반」, 『국학연구』 12, 2008.
- 김병우, 『대원군의 통치정책』, 해안, 2006.
- 김성윤,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37, 2006.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의 정치적 분화—유성룡·정경세학맥과 정구·장현광학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 김호중, 「서예 류성룡과 안동·상주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2000.
- 백도근, 「擬上六條疏를 통해 본 계당 류주목 선생의 사상」, 『상주문화연구』 5, 1995.
- 안병걸·김용현, 「영남학맥의 흐름과 인물」, 『퇴계학』 13, 2002.
- 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연구』, 서울대출판부, 2001.
- 우복선생기념사업회 편, 『우복 정경세선생 연구』, 태학사, 1996.
- 유인수, 「동춘당 송준길의 영남인과의 접촉과 그 추이」, 『충청학연구』 6, 2005.

- 우인수, 「입재 정종로의 영남남인 학계내의 위상과 그의 현실대응」, 『동방한문학』 25, 2003.
- 이우성, 「계당전서 해제」, 『계당전서』상, 아세아문화사, 1984.
- 장지연, 『조선유교연원』, 삼성문화재단출판부, 1979.
-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만인소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1997.
- 최재목, 「우복 정경세와 상주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2000.
-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지역의 퇴계학맥도』, 예문서원, 2002.
- 한국인물유학사편찬위원회, 『한국인물유학사』 4, 한길사, 1996.

## Abstract

Scholastic Mantle and Historical Prestige of  
Ryu Jyu-Mok(柳疇睦) and Ryu Doh-Su(柳道洙)

Woo, In-Soo

Ryu Jyu-mok and Ryu Doh-su were scholars of Southeastern doctrinal faction at the end of Chosun dynasty. They became the mainstreamers of Toegye(退溪) school through Ryu Seong-ryong. In other words Ryu Jyu-mok succeeded a scholastic mantle which had been inherited from Ryu Seong-ryong, Jeong Kyung-se, Ryu Jin, Jeong Doh-eung to Jeong Jong-ro, Ryu Sim-choon. And he was the one who imparted his knowledge to Ryu Doh-su. This is meaningful in two ways. One is that they succeeded a part of the orthodox Toegye school and the other is that they, at the same time, continued mainstream of Southeastern doctrinal faction.

Now, here are some features of this doctrinal faction. It was, almost, succeeded to blood relation and was crossed two lineages, Ryu and Jeong. Region this sect was propagated was usually southwestern province around Ahndong. As there are many descendants of Ryu Seong-ryong who served as a senior minister, the sect adhered a point of view which is following the professional spirit as a hereditary occupation strictly.

They also coped with political issues actively. For example, Ryu Ju-mok stood positively against Catholicism and the western power. When ByunginYangyo which was resulted from persecution toward Catholics broke out and French fleets came to attack, he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loyalty. In addition, he kept wielding the pen trying to meet the then social situation, on the basis of his knowledge about Sung Confucianism, courtesy, history and genealogy. Ryu Do-su, also, was very active at social issues just like his teacher did. He assisted Ryu Who-jo by writing 『Sangkampakui(相鑑博議)』 and presented

memorial to the throne as a chief for resolving a conflict, between king Kjong and his father, which was arisen from overthrown of king Kjong's father and his seclusion.

In short, Ryu Jyu-mok and Ryu Doh-su were confucianists who practiced a Youngnam Toegye scholastic mantle thoroughly. Their attitudes toward scholastic pursuit, social awareness and loyalty are really meaningful historically.

**Key Word**

Ryu Ju-mok(柳疇睦), Ryu Doh-su(柳道洙), Teogye Doctrinal Faction(退溪學派), Youngnam Province, Kyedangjeonseo(溪堂全書), Minsnamoonjeap(閩山文集)

- 논문투고일 : 2008.11.15. 심사시작일 : 2008.11.20. 심사완료일 : 2008.11.28.